

美 5대 도시 불교·가톨릭계, 사회 정의 나선다

미국 5대 도시에서 '사회 정의'를 주제로 한 종교간 대화에 불꽃이 열리고 있다. 'World News' 지는 7월 1일 "샌프란시스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DC 등 미국 5대 도시의 불교계와 가톨릭계가 6월 30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빈곤, 폭력, 불평등 등과 같은 사회 문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향후 불교와 가톨릭 두 종교의 대화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대 사회 프로젝트 이해와 협력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6월 22일~27일 미국의 불교와 가톨릭 지도자 50여 명이 로마 외곽에 있는 교황의 하계 별장인 카스텔 간돌포(Castel Gandolfo)에 모여, '고통, 해방과 우애'를 주제로 종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출처=The Catholic Sun

샌프란시스코·뉴욕·로스앤젤레스·시카고·워싱턴 DC 6월 22~27일 열린 '카스텔 간돌포 종교회의' 계기로

'연민'과 가톨릭의 '박애'는 두 종교가 대중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서로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공동 성명의 필요성은 이미 두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박애와 연민이 동시대 최고의 가치'라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이 단초가 되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2일~27일 미국의 불교와 가톨릭 지도자 50여 명이 로마 외곽에 있는 교황의 하계 별장인 카스텔 간돌포(Castel Gandolfo)에 모여, '고통, 해방과 우애'를 주제로 종교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교황청을 방문했으며 교황 프란치스코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깊은 연대로 연결돼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불교와 가톨릭이 나서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대결이 아니라 성숙한 상호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하는 데 관심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스텔 간돌포 종교회의에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와 가톨릭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가톨릭 주교 사무국 안토니 씨렐리(Anthony Cirelli) 신부는 "이번 종교회의는 가톨릭과 불교의 대화와 소통에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공의에 따라 마련했다"며 "이제 신학적 교류라는 과거의 주제를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 종교의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데 그 의미가 있

다"고 말했다. 한편 'Catholic Philly' 지에 따르면 '고통, 해방과 우애'를 주제로 진행된 카스텔 간돌포 종교회의에서 샌프란시스코 코바타 스님의 발제가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코바타 스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등의 종교계가 모여 결성한 종교간 협의회(Interfaith Council)는 2년 전부터 노숙자 보호센터를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방문해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연민과 박애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의 복지를 증진한 것은 물론 종교간 소통이라는 시너지 효과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atholic Philly' 지는 "불교의 자비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박애"라는 가톨릭 주교 사무국 씨렐리 신부의 말을 인용하고 "올해 초 교황 프란치스코의 자비의 해(Year of Mercy) 선언에는 '종교간 화합'이라는 기저가 깔려 있는 것이다. 가톨릭과 불교 지도자의 종교 회의도 그러한 맥락에서 준비됐다"고 풀이했다.

'World News' 지는 "사회적 모든 문제는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코바타 스님의 말을 인용하고, "카스텔 간돌포 종교회의와 그것을 단초로 발표된 미국 5대 도시의 불교계와 가톨릭계 공동 성명은 '관계의 깨어짐'을 직면하자는 데 합의의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두 종교계의 활동이 향후 미국 전역에 사회적 계층·계급 사이에 치유의 분위기를 널리 퍼지게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중국불교, 비즈니스에 몰두"

중국 정부 수익성 불교 테마 관광지 개발 나서
슈유 교수, 상업화 된 믿음 아닌 '간절한 믿음' 절실

중국의 중앙·지방정부가 '불교 비즈니스'에 몰두하고 있어 이를 바라본 국제 여론이 뜨겁다. 'Economist' 지는 6월 27일 "중국에서 한때 금지되었던 종교인 불교가 다시 중국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제하고 "중국의 중앙·지방정부가 수익 증대에 주목해 불교를 테마로 한 관광지 개발에 앞 다퉈 투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덴마크 관광객 चे니 푸(Cheni Foo) 씨의 "중국의 사원은 거대한 사업장인 듯하다"는 말을 인용, "관급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불교 관광지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꼬집었다.



남산해상관음상(사진) 앞에 관광객들이 줄비해 있다. 남산해상관음상을 가기 위해 관광객들은 남산불교문화원 입장료와 기도처 입장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 사진출처=Oncc

현재 중국에서는 문화 혁명기에 파괴되었던 불교사원이 공적 자금으로 복원되고 있다. 근래에는 새로운 불교사원도 생겨나고 있는데 대부분 관광 자원으로 투자되고 있다.

해남도 남산불교문화원(Nanshan Cultural Tourism Zone)의 남산해상관음상을 찾은 चे니 푸 씨의 경우 남산해상관음 상단에 마련된 기도처 입장료로 60위안(10,838원)을 지불했다. 남산불교문화원 입장료로 126위안(22,758원)을 지불한 뒤였다. 또 남산해상관음과 그와 어울린 중국 남해를 조망할 수 있는 호텔방에 투숙하기 위해 1,730위안(313,700원)도 지불했다.

해남도 남산사는 중국 전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사찰로 중국의 최남단에 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108미터의 남산해상관음(南山海上觀音)은 지난 2005년 봉

안된 것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여신상' 보다 높다.

'Economist' 지에 따르면 중국 중앙·지방정부는 수익에 목적을 둔 불교 테마 관광지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허난성 봄(Spring) 사원에 세계 최대 규모인 128미터 불상을 봉안했다. 간쑤성에서는 지방정부 주도로 둔황과 그 주변 모래 언덕을 연계해 불교 테마 공원을 진행하고 있다. 푹푸로 유명한 소림사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에서는 2억 9,700만 달러(3,327억 8,850만 원)를 투자해 500 침상의 호텔을 짓고 무술학교, 27홀 골프장 등을 건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슈유(Xue Yu·중국대학 불교학 교수) 스님은 "중국불교가 수행불교로서의 모습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불교가 상업화 된 믿음이 아닌 간절한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일본 만화 번역'으로 반핵·평화 운동

중국 정부 수익성 불교 테마 관광지 개발 나서
슈유 교수, 상업화 된 믿음 아닌 '간절한 믿음' 절실

스리랑카 한 스님이 반핵·평화 운동에 적극 나서 화제다. 특히 일본 인기 만화 번역본을 사용해 눈길을 끈다. 아사히신문은 6월 29일 "스리랑카 소마시리(Somasiri·55) 스님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다룬 일본의 인기 만화 <하다쉬 노 겐(덴발의 겐)>(전 10권을 스리랑카어로 번역, 출판하고 스리랑카에서 반핵·평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행정 콜롬보의 주요 사원인 사마 마하(Sama Maha) 사원의 주지, 소마시리 스님은 최근 <하다쉬 노 겐>의 전 10권 중 1·2권을 번역, 출판하

고 대중에게 배포하고 있다.

"한 세대의 배움은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한다"는 소마시리 스님은 "1년 전 <하다쉬 노 겐>의 출판권을 계약하고 싱할리어로 펴낸 이유는 일본의 이야기일지라도 그 속에서 스리랑카에 평화의 가치를 전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앞선 세대의 뼈저린 교훈은 그 다음 세대의 절대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리랑카는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6년간의 내전을 겪었다. 불교계 싱할라족과 소수 힌두교계 타밀족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이 내전으로 10만여 명 이상의 사망

자, 수십만의 부상자, 1백만여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소마시리 스님은 "내전이 종결된 지 6년이 되었지만 스리랑카에서 그 흔적은 여전하다"며 "사마 마하 사원은 지금도 난민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고아를 돌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하다쉬 노 겐>의 싱할리어 본 출판도 스리랑카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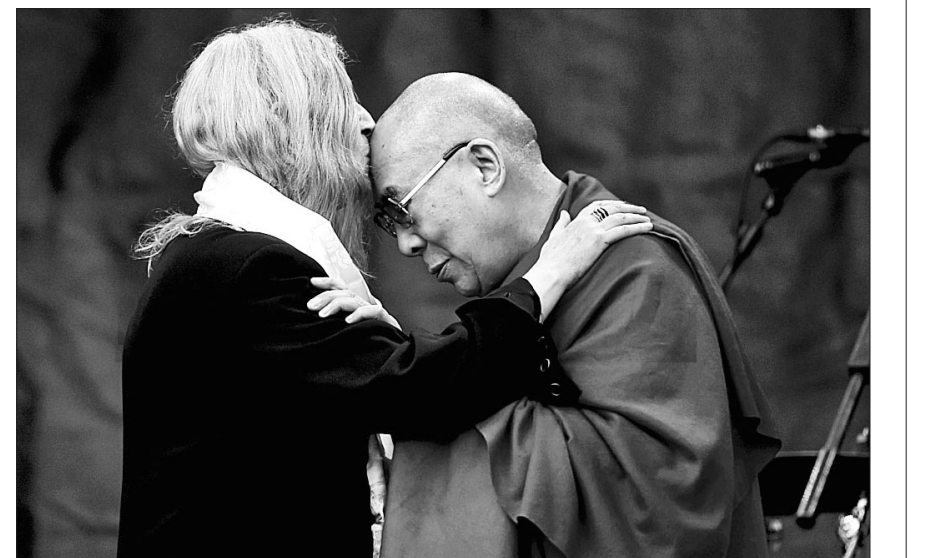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스님이 <하다쉬 노 겐> 번역·출판을 결심한 것은 1년 전 히로시마 '평화기념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이다. 스리랑카가 원폭을 겪지 않았지만, 그 상흔만큼은 동일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마시리 스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새벽 5시부터 <하다쉬 노 겐>을 번역하는 데 몰두했다.

"<하다쉬 노 겐>에는 일본 방언이 많은데 이를 번역하는 게 힘들었다"는 소마시리 스님은 "이 만화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2권을 우선 내놓았는데 앞으로 모두 번역해 스리랑카 반핵 평화 운동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소마시리 스님은 1980년대 다이쇼 대학에서 수학하면서 일본과 그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스리랑카로 돌아와 수행에 전념한 후 콜롬보 주요 사원이 '사마 마하'에 주지에 취임하면서도 일본 카토리 지역의 스리랑카 불교사원인 란카지(Lankaji) 사원의 주지 겸직을 요청한 것도 일본에 대한 남다른 관심에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마시리 스님은 최근 나가사키 원폭을 다룬 <나가사키 노 케인(나가사키의 중)>의 판권을 계약하고, 싱할리어본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영국 음악축제 참가한 달라이라마 영국 방문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6월 28일(현지시간) 세계적 음악 축제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The UK's Glastonbury Festival)에 참석했다. 달라이라마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패티 스미스(Patti Smith)의 소개로 무대에 올라 자비와 평화 사상을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국가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서로를 죽이고 있다"면서 "모든 인간은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해 큰 환호를 받았다. 한편 패티 스미스는 7월 6일 80세 생일을 맞은 달라이라마를 위해 감쪽 케이크를 준비해 관객들과 함께 생일노래를 부르며 달라이라마를 축하하기도 했다. <사진출처=eNCA> 박이름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www.hyunbulshop.com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동업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인쇄상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문(39:25)	제8, 오색제자수기(21:11)	제15, 종지용출품(21:13)	제22, 속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8:51)	CD06-제9, 수해우학인기(11:22)	제16, 여래수상품(21:15)	제23, 약왕보살보살품(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법사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CD10-제24, 보살보살품(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건보탈품(22:19)	제18, 수회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살품(19:26)
제5, 약초유품(16:08)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6, 다라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지품(10:07)	제20, 상왕보살품(13:15)	제27, 묘장왕보살품(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안력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보살품(14:07)